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연구*

- 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Practice of Coming-of-Age Ceremonies as a Family Event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조교수 주영애**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an's Univ.

Assistant professor: Ju, young-ae

〈목 차〉

I. 서론	IV. 결과분석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of the practice of coming-of-age ceremonies as a family ev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and 321 mothers residing in Seoul, South Korea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15th, 2010 to June 25th, 201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17 computer program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In the future, coming-of-age ceremonies will be necessary in family event.
2. Education for mothers (specifically for mothers under the age of 30) opposed to coming-of-age ceremonies is necessary.
3. The contents for the education of coming-of-age ceremonies must include ceremony processes, alcohol consumption etiquette, and sex education.
4. Coming-of-age ceremonies, as family events, will be desirable to have on the 19th birthday.
5. Education of coming-of age ceremonies must be done in schools or so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will especially be able to play a central role.
6. Education of coming-of-age ceremonies is necessary even from the popular media.

* 이 논문은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주영애 (jyoungae@sungshin.ac.kr)

Key Words : Coming-of-age Ceremony(성년례), family event(가족행사),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건강가정지원센터)

I. 서론

예로부터 “예(禮)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요, 관례는 예를 행하는 시초이다. 하늘을 본 뜬 것이 관(冠)의 제도이고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은 관례의 뜻이다. 관례를 행한 뒤에야 인도가 갖추어지고 인도가 갖추어진 뒤라야 예의가 서게 된다.”(현종 때 왕세자 이돈(李燾)의 교시, 玄宗改修實錄 38集 16面 11년 3/9 병인) 라고 하였다. 이는 관례를 행한 뒤라야 비로소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 기존 사회에 합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관례를 치룬 후 혼인을 할 수도 관직의 길로도 나갈 수도 있는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사회에서의 관례 형식은 그대로 현 생활에서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으나, 갈수록 서양식 성년례에 밀려 전통성년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는 전통성년례의 부활을 통해 전통성년례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주고자하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성숙된다는 것과 성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각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인식을 해왔고, 우리사회에서도 예로부터 어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일깨우는 의례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시킴으로 사회의 가치관을 전승하고 유지 시켜왔다. 그러나 현대는 관례가 사라지면서 어른 된다는 의미를 가르칠 기회와 방법도 사라지고 있다.

더욱이 핵가족화로 위계질서 교육이 위협받는 현대사회에서 과보호로 양육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에만 민감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근래에는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및 사회단체에서 사회적 책임과 의미를 깨닫게 하는 관례를 ‘성년례’라 칭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단성년례 형식으로 다양하게 의식을 시행하고 있다. 성년례는 여러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성년을 맞는 이들 중 소수만 참여할 기회를 얻고 있고 특히 집단 성년례의 특성상 대표자 몇 명만 온전한 의식을 경험하며 그 밖의 참여자 대다수는 방관자의 입장에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년례를 치르면서도 그 의례의 진정한 의미인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뜻을 내면화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성년자가 제외되고 소수의 의식으로서 끝나는 현행 성년례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과 의례로서의 성년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별성년례 형태로 진행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이정우, 김연화, 김경아, 2000: 조희선, 이해자, 이윤정, 2002)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주관하여 관례자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성년례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성년자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들의 만족도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성년자의 희망사항이 성년례 모델을 구성해가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가족의 행사로서 성년례를 자리매김 시키고자하는 측면에서는 행사 주관자의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현대 가정에서는 전통 성년례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부모세대가 성년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므로 그 행사의 의미나 필요성, 형식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년례의 변화과정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성년례를 행하였거나 행할 대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성년례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천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보다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성년례의 변화과정

전통 성년례는 고려 광종 16년(956)에 왕자에게 원복례(元服禮)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례의식(冠筓禮儀式)이 기록되어 있는 중국의 ‘예기(禮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인 신라 신문왕 6년(686년)때 같이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김순진, 2003) 그 후 성년례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사대부를 중심으로 널리 행해졌다.

전통 성년례는 남아에게 상투를 틀어 갖(관)을 씌우고 어른의 옷을 삼단계로 갈아입히는 관례와 여아에게 어른의 복식을 입히고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가 있다. 예서(禮書)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정월에 택일하여 관례를 하였으며 3일전에 주인이 사당에 고하고, 예에 밝고 덕망 있는 어른을 빈(貧)으로 모셔 관례를 주관하게 하였다. 관례는 세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첫 단계는 어린이 세계에서 분리됨을 뜻하는 분리 의례이며 두 번째 단계는 어린이세계에서 어른

세계로 이동하는 경과 의례의 성격을 띠는 정화의례로서의 술의 의례이고, 세 번째 단계는 어른 세계로의 통합을 뜻하는 의미로 자(字)를 지어주는 의례로 진행된다.

첫단계 분리의례는 삼가례(三加禮)로 아이 때 입던 동자복 차림으로 식을 시작하여 성인이 되면 입게 될 어른의 평상복-외출복-예복의 순서로 세 번에 걸쳐 점차 예를 갖춘 어른의 성장한 모습으로 옷으로 갈아 입혀 실제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알린다. 이는 어른의 옷으로 바꾸어 입었으므로 어린아이의 허물을 벗고 어린이의 세계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인 경과 의례는 술의 의례인 초례(醮禮)이다. 이는 어른이 내려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새로운 지위와 관계, 그리고 질서의 형성을 상징하는 의례이다. 술로 예를 행하는 것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경과의례이자 신성한 의식인 정화의례이다. 세 번째 단계인 자관자례(字冠者禮)는 관례자에게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주어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린이를 벗어나 기성사회로의 통합을 상징하는 의례이다. 초대 받아 온 빈객(큰손님)이 관례를 올리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데 이는 어른으로서 제2의 탄생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례가 끝나면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어른이 되었음이고 한 뒤 밖에 나와 친척과 마을 어른을 찾아 뵙고 절을 하여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게 된다. 또한 주위의 어른들은 관례자를 축하하고, 어른으로 대우하여 말씨도 ‘해라’에서 ‘하계’로 바꾸고 절도 맞절을 해 준다. 이처럼 관례를 치른 후에야 완전한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례는 조선시대 후기에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삼가례를 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대부분의 경우 예서보다 간소하게 행하게 되었으며, 10세가 넘으면 혼

례를 서둘렀던 조혼의 풍습으로 인해 관례는 혼례과정에 흡수되어 사회적 의의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시행된 단발령으로 인해 상투와 관으로 상징되던 관례의 형태도 그 의의를 잃게 되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가를 중심으로 전통 가정의례 전승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마을 단위 집성촌이 붕괴되어 종가나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던 성년례마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박대순(1987)은 전통적 의미의 관례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첫째, 사례(四禮) 중에도 관례는 혼례나 상례에 비해 그 행사 후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 둘째, 조선 후기 청나라의 영향으로 변발풍습이 유행한 점, 셋째, 을미개혁 때 내린 단발령, 넷째, 관례가 결혼의 전제적 행사가 되면서 점차 약혼식과 융합되어 버린 점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1969년 12월 4일 동아일보에 박일봉이 ‘성년일(成年日)’ 제창(提唱)을 제안하여 이를 계기로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주관하여 1971년 첫 성년일 축하식을 올렸다. 그 뒤 1972년 3월 30일에 대통령령 제 6615호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1973년 4월 20일에 제1회 ‘성년의 날’ 행사를 국가차원에서 거행하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1999년 8월 31일 관례를 성년례라 하여 매해 5월 3째 주간을 성년 주간으로 정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민법이나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성년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현대 성년례의 기본적인 형태는 머리와 의복의 변화로 행해지기가 어려운 삼가례(三加禮)와 쓰임이 없어진 자를 지어주는 명자례(名字禮)는 생략되고, 현대의 흐름에 맞게 성년선서 및 성년 선언을 행하고 성년이 되어 처음 마시는 술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성년례는 주로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주도하는 집단 성년례의 형태로 시행됨에 따라 참석인원, 장소, 성년례의 절차나 형태등도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는 자칫 주최 측의 편의에 의해 성년례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생길 수도 있으며 집단 성년례의 특성상 성년자 개개인에게 의미있는 성년례가 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러한 형식이 널리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현대 성년례는 한 두명의 관·계례자를 대표로 전통성년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 참여 성년자들은 집단 형식으로 성년선서, 성년선언을 하고 큰손님의 특강을 듣는 걸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혼합한 절충형식으로 복식과 절차 등에서도 절충형식으로 진행된다. 현대 성년례의 유형을 보면 주로 부모를 배제하고 성년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복은 남자는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쓰고 여자는 노랑 저고리와 빨강 치마, 혹은 당의를 입고, 화관을 쓰는 것으로 간소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성년례는 성년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1990년대 말부터 현재 2010년까지 10년 이상 행해져 오면서 그 형식적인 기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지만 집단 성년례가 갖는 한계점과 그에 따른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사)한국가정 생활개선진흥회가 성년례를 치른 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관에 의한 단체 성년례를 치른 사람들의 경우 너무 형식적이어서 지루했으며, 인원이 많아서 본인은 들리리를 선 것 같았다는 응답이 33% 나왔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응답도 37%였다.(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2003)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 성년례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한 바를 할 수 있다.

한편 외래문화가 유입되면서 전통의 관례와

는 다른 성인식이 20세 무렵 청년기들의 또래 문화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인식에 성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여 꽃이나 향수를 선물하고 술을 마시며 서로 축하 행사를 갖는 등 기존의 전통 성년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성인식을 하고 있다. 대학생의 성년식 실태조사에 의하면(조희선 외, 2002)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다행이나 친구나 또는 선배들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식사 후 술집으로 가 쓰러질 때까지 마시거나, 나이트 클럽이나 성인전용극장에 가보거나, 이성친구와 오감에 맞는 장미나 향수, 사랑한다는 말, 초콜릿, 키스 등 선물을 하거나, 남자의 경우 선배로부터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를 제공받기도 하는 등 무분별한 성인들의 향락적 행위 모습을 따라하기도 한다. 이는 성년례가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보다는 즐기는 문화로서 청소년들 사이에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기 학생들에게 성년례의 본질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행위와 사고를 책임지는 것이 어른이라는 깨달음을 그 의례를 통해 가르쳐야 할 부모와 사회가 그 역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현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가정과 학교에서도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성인으로서의 가치관 정립과 법적, 사회적 정당한 권리나 의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기인한 바도 크다. 이에 사회적으로 각종 사회현상이 야기 되고 이를 우려한 뜻있는 단체에서 현대에 맞게 고쳐진 새로운 형태의 성년례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성을 통해서 성년의 날을 의미 있는 날로 여기고, 기존의 소비향락적인 성년의 날 문화에서 벗어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년의 날 페스티벌’이라는 형식에 동참하는(2010.5.17, 뉴스시스) 캠페인도 나타나고 있다.

2. 선행연구

2. 선행연구

성년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박대순(1987), 김상보(1989)등이 문헌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관례연구를 하여 그 성격과 절차, 구조 의의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통성년례를 현대에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성년례 모형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로는 조희진·김정신 연구(1998)를 비롯하여, 이정우·김연화·김경아(2000), 조희선·이혜자·이윤경(2002), 김순진(2003), 이동필(2004),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2005)연구 등이 있으며, 한국 성년식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연구한 이승원(2006)과 전통관례와 현대 성년례 복식을 연구한 김혜경(2008), 김은희(2009), 새로운 성년례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신상구(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오늘날은 전통성년례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대식 성년례를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순진(2003)은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연구에서 전통관례와 현대성년례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그 시행의 변화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시기의 차이로 전통은 남자 15-20세, 여자 15세였는데 현대 성년례는 법률적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5월 셋째주 중 주최 측의 편리한 날짜에 진행하며, 둘째, 전통 성년례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현행 성년례는 대부분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전통의 경우 부모가 성년례를 주관하므로 부모의 역할이 컸으나 현행 집단 성년례에서는 회사, 학교, 각 단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됨에 따라 실제 부모는 행사에 단순히 참여할 뿐이므로 부모의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

고 할 수 있다. 넷째, 복장의 절차가 간소하게 변화하였다. 다섯째, 현대 성년례에서는 자를 지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명자례 절차가 생략되었다. 대신 성년선서, 성년선언을 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듯이 사회의 변화에 맞춘 현대식 성년례가 요청될 수밖에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원(2006)은 현대 성년식의 교육적 의의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즉 성년식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충하는 또 다른 사회 함의적 '교육적 차원'으로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사회적 공공적인 차원의 것이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새겨 볼 필요가 있는 바, 교육상실의 위기 속에서 성년식을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례의 성격과 관련이 깊으므로 성년식을 통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의례로서 자리잡아갈 수 있다면 그 교육적 의의도 매우 클 것이라 하였다. 또한 성년식을 위한 일정 기간 준비하는 사전교육의 필요성으로 집중 독서, 국토순례, 금연학교 입학, 기아체험 등의 방법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하였으며, 성년식 정착과 효과를 위해 종교교육의 긍정적인 기능회복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종교교육과 활동을 통해 의미가 있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종교기관들이 성년식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성년식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조희진·김정신(1998)은 대학에서의 집단성년례실시를 목적으로 연구하여 집단성년례의 모델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이정우·김연화·김경아(2000)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규범화된 성년례문화 보급을 제안하면서 성년례의 필요성을 성년자가 인식하도록 선도책으로 교양

과목의 활성화 및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성년례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희선·이혜자·이윤경(2002)은 전통 의례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상황과 조건에 맞는 성년식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면서, 성년자 개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개별 성년식의 시행을 권장하되 단체에서 행할 경우에는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참가인원을 조절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오환일·김정신·이행숙·조희진(2002)은 중국연변에 위치한 한연직업기술학교 조선족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성년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바 학생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과 관심을 갖게 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새로운 인식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성년례와 전통예절을 교육했고, 성년례의 마지막 절차인 성년선언을 경험하면서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음에 의미를 두었다. 이동필(2004)은 관례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다.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2005)는 숙명여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숙명여대가 공동주최하는 숙인당 후원의 성년례 프로그램 참여자 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고, 은사님과 부모님을 모시고한 행사를 포함한 성년례 행사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나친 상업성에 치우친 왜곡된 성년례를 지양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특성과 요구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년례특강, 성년례정착을 위한 연구, 건전 성년례 프로그램 모형개발, 예비부부교육으로서 성년례확산을 위한 건강가정센터 가정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제 행사 증가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최근 김은희(2009)는 성년례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으로 성년자 생일축제와 연계한 성년례를 제안하였다. 성년례에 관한 의식조사를 병행한 연구 제안은 아니었으나, 성년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시론적인 내용으로 현대의 성년례에 대한 관심과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새로운 문화콘텐츠로부터 성년례 활성화를 이끌어 낸 신상구(2010)는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성년례는 인생에서 있어서 터닝 포인트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통적인 관례가 우리의 저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놀이와 즐거움, 거기에 교훈이라는 여러 의미를 담아야 할 것으로 보고, 그 의미를 옛길에 찾고자 하였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행해지는 관례에서 역사와 인생을 담고 있는 ‘옛길’을 걷게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신문왕로길을 걷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즉 신문왕로는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을 만나러 가던 길, 문헌에 여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길이며, 또 신문왕은 관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기]라는 책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옛길 위에서 성년례의 통과의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분리조정 재생 통합이라는 4가지의 과정을 넣어 세부적으로 자아-상생-수양-세신-성인탄생이라는 단계로 전개하였다. 인문학에서의 스토리텔링연구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성년례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성년례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

통성년례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으로 수용발전 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형식은 집단 혹은 개별로 이루어 질수 있지만, 그 의미를 성년자가 인식하고 내면화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성년자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가정의례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개별 성년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주관자가 되는 부모를 중심으로 시도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전통사회 가정의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화될 수 있는 가족행사로서의 개별성년례를 제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성년자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연구가 기초연구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어머니들의 자녀 성년례 실천 사례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 2) 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경향인가?
- 3) 어머니들이 희망하는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는 어떠한 경향인가?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도구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2010년 3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련전공 교수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4차의 도구개발 회의 후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1차 완성된 설문지는 성년례를 행하였거나 행할 대상의 자녀를 둔 40-50대 전업주부 20명

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에 대한 희망문항을 보완하여, 2차 질문조사를 위한 도구를 완성,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6문항과 성년례에 대한 기존 인식조사 11문항, 앞으로 원하는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에 대한 18문항으로 총 35문항의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1) 사례조사

사례조사는 성년례를 행하였거나 행할 대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0년 4월5일부터 15일까지였고, 40-50대 전업주부 20명은 면접조사자와 1:1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고 이를 녹음하였다. 고등학교 자모회를 중심으로 만난 어머니들의 면접을 시작하여 스노우볼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녹음되었던 인터뷰 내용은 기본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개인적인 응답은 사례별로 정리하여, 응답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5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표집 대상인 서울의 강동 강서 강남 강북 지역의 고

등학교 자모회를 중심으로 한 대상자로부터 1차 자료를 수집하고, 연령과 조사지역의 분포를 고려하여 사례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2차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총 420부의 설문지를 배부, 수집하여 이중 부실 기재된 설문을 제외한 32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지역적 분포는 강남지역 91명, 강동지역 99명, 강북지역 80명, 강서지역 51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과 χ^2 test를 통해서 분석되었다.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사례조사 대상자들은 총 20명으로 연령은 40대 12명, 50대 8명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4명, 대졸 15명, 대학원졸 1명으로 이루어졌다. 월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9명, 400-500만원이 7명, 300-400만원이 3명, 200-300만원이 1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8명, 무교 6명, 불교 3명, 천주교 3명이었다. 자녀를 2명 둔 어머니들이 13명, 3명을 둔 어머니들이 6명, 1명을 둔 어머니는 1명 이었다(표 1 참조).

한편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사례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사례	연령	최종 학력	가구의 월소득	종교	자녀구성	성년례 실천	실천 희망
1	46	고졸	500만원 이상	기독교	아들1 대학생, 딸1 고등학생, 아들2 초등학생	×	×
2	52	대졸	300-400만원	기독교	딸 대학생, 아들 대학생	×	○
3	47	대졸	400-500만원	기독교	아들 대학생, 딸 고등학생	○	○
4	40	대졸	400-500만원	기독교	딸1 고등학생, 딸2 초등학생, 딸3 초등학생	×	○
5	49	대졸	400-500만원	불교	아들 대학생, 딸 초등학생	×	○

〈표 1〉 계속

사례	연령	최종 학력	가구의 월소득	종교	자녀구성	성년례 실천	실천 희망
6	52	고졸	200-300만원	무교	아들 대학생, 딸 대학생	×	○
7	49	대졸	400-500만원	천주교	딸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	○
8	48	고졸	300-400만원	불교	아들 대학생, 아들 대학생	×	-
9	53	대졸	500만원이상	기독교	딸 대학생, 아들 대학생	○	-
10	43	대졸	500만원이상	무교	딸1 고등학생, 딸2 중학생, 아들1 초등학생	×	○
11	52	고졸	500만원이상	무교	아들 대학생, 딸 대학생	×	-
12	57	대졸	400-500만원	불교	아들1 대학생, 딸1, 2 직장인	×	-
13	55	대졸	400-500만원	무교	딸 직장인	×	-
14	50	대졸	500만원이상	기독교	딸1 대학생, 딸2 대학생, 딸3 중학생	○	×
15	48	대졸	300-400만원	무교	딸1 대학생, 딸2 대학생, 아들1 중학생	×	×
16	47	대졸	400-500만원	천주교	딸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	○
17	52	대졸	500만원이상	기독교	딸 직장인, 딸 대학생	○	-
18	44	대졸	500만원이상	천주교	아들1 대학생, 아들2 고등학생	×	×
19	47	대졸	500만원이상	무교	아들1 대학생, 아들2 대학생	×	×
20	40	대학원	500만원이상	기독교	딸1 고등학생, 딸2 초등학생	×	○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으로 연령, 직업, 학력, 월 소득과 종교 등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들의 연령은 주로 40대(56.7%)와 50대(31.2%)로 자녀들이 성년시기의 전후에 있는 경우였으며, 직업은 전업주부(62.9%)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대졸학력자(73.5%)가 대부분이었고, 월 소득 400만원~600만원(41.1%)인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400만원이하(36.1%), 600만원이상(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40.2%)가 가장 많았고, 불교(25.2%), 무교나 기타(21.3%), 천주교(15.3%)로 나타났다.

2. 성년례 실천 사례

성년례의 실천 사례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20사례 중 6사례만이 실천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에게 성년례를 해주고 싶은 경우는 9사례로 나타났고, 성년례의

〈표 2〉 설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N	%
연령	30대	39	12.1
	40대	182	56.7
	50대	100	31.2
직업	전업주부	202	62.9
	자영업	34	10.6
	전문직, 사무직	58	18.0
	서비스직, 기타	27	8.4
학력	고졸이하	60	18.7
	대졸	236	73.5
	대학원졸이상	25	7.8
월소득	400만원이하	116	36.1
	400-600만원	132	41.1
	600만원이상	73	22.7
종교	기독교	129	40.2
	천주교	49	15.3
	불교	81	25.2
	무교, 기타	62	21.3
	계	321	100.0

의미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해줄 의지도 없는 경우가 5사례로 나타났다. 그 외 6사례는 자녀들이 이미 성장하여 성년례를 다시 해 줄 기회는 없는 경우였다. 성년례 실천 사례들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들이 만 20세 생일에 생일상을 차리고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는데,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직접 술을 가르쳤고 교환을 내려주었어요. 아이들이 성년례를 해준 것을 무척 좋아 했고 뿌듯해했어요. 금지도 느끼고 자랑스러워 했어요... 선물로 금목걸이를 해 주었는데 몸에 계속 지니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하였다. (사례 9)

‘아들이 재수를 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하는 성년례를 참가할 기회가 없어 섭섭해서 집에서라도 해 주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도 아들을 이만큼 키웠다는 뿌듯함이 있어서 아들이 20살 성년이 되는 날에 선물로 귀걸이, 속옷을 사주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들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했어요. 전통 관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 의미를 알고 보니 참 좋아 보이고, 고3인 딸아이에게는 전통적인 성년례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례 3)

성년 축하에 아빠가 동참한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처음으로 아빠가 쓴 축하편지와 선물을 받고 아이가 아주 기뻐했어요’ (사례 7)

성년례를 치른 사례는 모두 아버지가 성년 축하의식을 주도하는 경향이었으며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 행사의 경험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주변 가족의 성년례 행사를 보고 행한 경우, 성년례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이 단지 축하해 주는 의미로 저녁 먹고 선물을 줄 때 아이들이 별 반응을 안 보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남동생댁이 성년례에 대해 알려주어 알게 되었는데... 남동생댁이 자기네 아이들 성년례를 해주었다고 자랑하는 말을 듣고 둘째 딸아이의 성년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친정식구들 상에서 유행처럼 아이들의 성년례를 해주었어요.’ (사례17)

이는 성년례에 대해 부모가 지식을 갖고, 어떠한 내용의 성년 축하를 하느냐에 따라 그 교육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자중 딸이 있는 어머니(사례7, 9)는 초경을 하게 된 딸에게 케이크를 사주고 축하해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그중 몇 명은 성년례를 성과 관련된 행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자의 성년례는 초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초경을 한다는 것은 성인의 초입에 들어간 것이라 여겨 바른 몸가짐에 대해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여성이 되었음을 축하해 주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딸이 있는 조사 대상자 중에는 딸의 초경만 축하해주고 만 19세 성인의 해에는 별도의 축하나 의례 없이 지난 경우도 있었다. 한 사례(사례 8)의 경우에는 아들의 몸에 음모가 난 것을 보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케이크 사주었다고 답했다. 이는 성년례를 성과 결부시킨 것으로만 이해하고, 우리 전통 성년례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성년례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도 못할뿐더러, 앞으로도 실천할 의지를 전혀 갖지 못하는 사례(사례1, 14, 15, 18, 19)도 있었다.

‘최근에 둘째 딸아이가 대학교에서 성년례를 했는데... 아이에게 별 변화도 없고, 나도 할 필요를 못 느껴요. 큰 딸아이는 미국 유학중이고 막내 딸아이에게도 해 줄 마음이 없어요.’ (사례 14)

‘성년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 줄 마음도 없어요’ (사례 19)

또한 딸이 성년의 날에 선배들한테 선물을 많이 받아와서 아이들끼리 하는 문화로 생각했던 (사례 16)경우도 있어, 어머니가 의례의 성격이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3. 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

<표 3>에는 어머니들의 성년례 인식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나타내었으며 <표 4>, <표 5>에는 어머니들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년례인식의 차이검증을 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난 연령과 종교에 따른 차이 결과만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어머니들은 이전부터 성년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55.1%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27.1%였고,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17.8%로 나타났다. 이는 <표 4>를 볼 때, 어머니들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P<.05$), 연령이 높을수록 성년례에 대해서 질문에 응답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50대의 경우는 65%였으나, 30대에는 28.1%로 차이가 났다. 한편 성년례를 알게 된 경로는 대부분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고, 학교교육이나 평생교육, 가족이나 친지,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경우는 10%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성년의 날인 5월에 집단성년례

<표 3> 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

구분		N	%
성년례에 대한 사전 인지	잘 알고 있다	29	9.0
	알고 있다	148	46.1
	들어본 적이 있다	87	27.1
	잘 모르겠다	57	17.8
성년례에 대해 알게 된 경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198	61.7
	학교 교육을 통해서	22	6.9
	평생교육원등 사회교육을 통해서	8	2.5
	부모나 가족 친지로 부터	20	6.2
	책을 통해서	9	2.8
	기타	34	10.6
	잘 모르겠다	30	9.3
성년례 행사의 의미	아이들끼리의 술 배우고 성에 눈뜨는 도래 문화이다	3	0.9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행하는 행사 중 하나이다	4	1.2
	대학교에서 신입생에게 행하는 행사 중 하나이다	2	0.6
	여자의 초경을 축하해주고 몸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의식이다	15	4.7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의식이다	291	90.7
	기타	6	1.9

〈표 3〉 계속

구분		N	%
성년례 근원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던 전통문화이다	198	61.7
	근래에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이다	26	8.1
	근래에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생긴 문화이다	33	10.3
	잘 모르겠다	64	19.9
성년례 시기	여자 아이들 초경을 시작할 때	22	6.9
	고등학교 졸업할 때	31	9.7
	대학교 1학년 때	6	11.2
	만 19세 생일날	110	34.3
	5월 성년의 날	122	38.0
계		321	100.0

를 개척하고 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언론매체의 방송을 통해 시청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방송 매체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년례 행사의 의미는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는 의식이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으나(90.7%), 여자아이의 초경을 축하해주고 몸을 소중히 여기

게 하는 의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4.7%였다.

성년례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던 전통문화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 61.7%에 해당 되었으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약 20%에 이르고 있었고, 근래에 필요에 의해 새롭게 생긴 문화(10.3%)라고 인식한다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문

〈표 4〉 어머니들의 연령에 따른 성년례 인식의 차이

성년례에 대한 인식		30대 N(%)	40대 N(%)	50대 N(%)	계 N(%)	
성년례에 대한 사전 인지	잘 알고 있다	2(5.1)	18(9.1)	9(9.0)	29(9.0)	$x^2=$ 16.446 df=6 P<.05
	알고 있다	9(23.0)	83(45.6)	56(56.0)	148(46.1)	
	들어본 적이 있다	18(46.1)	47(25.8)	22(22.0)	87(27.1)	
	잘 모르겠다	10(25.6)	34(18.6)	13(13.0)	57(17.8)	
성년례의 근원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문화	16(41.0)	117(64.3)	65(65.0)	198(61.7)	$x^2=$ 15.590 df=6 P<.05
	근래에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	2(5.1)	12(6.6)	12(12.0)	26(8.1)	
	근래에 필요에 의해 생긴 문화	6(15.4)	18(9.9)	9(9.0)	33(10.3)	
	잘 모르겠다	15(38.5)	35(19.2)	14(14.0)	64(19.9)	
계	39(100.0)	182(100.0)	100(100.0)	321(100.0)		

<표 5> 어머니들의 종교에 따른 성년례 인식의 차이

성년례에 대한 인식		기독교 N(%)	천주교 N(%)	불교 N(%)	무교,기타 N(%)	계 N(%)	
성년례의 근원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문화	69(53.5)	35(71.4)	61(75.3)	33(53.2)	198(61.7)	$\chi^2=$ 17.231 df=9 P<.05
	근래에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	14(10.9)	5(10.2)	2(2.5)	5(8.1)	26(8.1)	
	근래에 필요에 의해 생긴 문화	17(13.2)	3(6.1)	6(7.4)	7(11.3)	33(10.3)	
	잘 모르겠다	29(22.5)	6(12.2)	12(14.8)	17(27.5)	64(19.9)	
계		129(100.0)	49(100.0)	81(100.0)	62(100.0)	321(100.0)	

화(8.1%)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표 4>, <표 5>를 보면 이에 대해서 어머니들의 연령(P<.05)과 종교(P<.05)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년례의 근원에 대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아졌으며, 근래에 생긴 문화(15.4%)로 인식하거나 잘 모르겠다(38.5%)는 경우가 많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종교별로는 불교나 천주교의 경우가 기독교나 무교 및 기타종교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문화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성년례를 하는 시기는 5월 성년의 날(38.0%)이나 만 19세 생일날(34.3%)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년례의 실행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년례의 실행에 관한 어머니들의 응답결과는 <표 6>과 같다. 자녀의 성년례를 실행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에서 17.1%로 나타나 성년례의 실행이 미미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실행했을 경우, 그 내용을 보

면, 성년례를 행한 곳은 대부분 가정(78.2%)이나 학교(10.9)가 대부분이었다. 성년례의 실행 방식은 생일날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서 축하해주거나(45.5%), 외식하고 성년축하를 해준 경우(40.0%)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전통식으로 해준 가정은 5.5%. 예절원에서 배운 현대식 성년례를 해 준 경우는 7.3%였다. 따라서 ‘성년례’의 의례적인 형식을 통해서 했던 경우는 12.8%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년례에 사용한 비용은 5만원 미만(50.9%)이 대부분이었고, 성년례를 치룬 후 자녀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어른스러워지고 책임을 다하려는 경우와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 같으나 변화가 없었다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성년례를 통해서 자녀들이 보다 성인의 책무를 내면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어머니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들의 성년례 실행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가족행사로서 희망하는 성년례에 대한 견해

가족행사로서 희망하는 성년례에 대한 견해는 <표 7>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

〈표 6〉 어머니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년례의 실행

구 분		N	%
자녀의 성년례실행 여부	했다	55	17.1
	안했다	266	82.9
성년례를 했을 경우, 행한 곳*	가정	43	78.2
	학교	6	10.9
	지방 자치단체	1	1.8
	종교기관	1	1.8
	기타	3	5.5
자녀의 성년례 실행방식*	전통식으로 해주었다	3	5.5
	예절원에서 배운 현대식성년례를 해주었다(성년선서, 성년선언 포함)	4	7.3
	아버지와 술자리를 마련해서 술을 가르쳤다	1	1.8
	생일날 케익과 선물을 준비해서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주었다	25	45.5
	외식하고 성년축하를 해 주었다	22	40.0
성년례에 사용한 비용*	5만원 미만	28	50.9
	5만원-10만원 미만	15	27.3
	10만원 이상	12	21.8
성년례 후 자녀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	매우 어른스러워졌다	7	12.7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20	36.4
	변화하려고 노력할 것 같으나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았다	21	38.2
	전혀 변화가 없었다	7	12.7

* 성년례를 실행한 55명의 응답임.

년례를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어른으로서 지켜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배우는 내용(35.7%)과 올바른 성교육 내용(21.1%)이 중심을 이루었다. 성년례를 하는 시기는 만 19세 생일날 (42.1%)이나 5월 성년의날(39.3%) 또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12.5%)이라고 하는 응답도 있었다. 가족행사로서 하고자 한다면 개별성년례가 되므로 자녀의 생일에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성년례를 하는 장소도 대부분 집(68.8%)에

서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의례를 주관하시는 큰손님 초대와 관련해서는 모시고 싶지만 번거로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것(54.5%)으로 나타났고, 모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25.5%로 나타났다. 오히려 큰손님 역할의 대행자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43.6%),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가족 중에 자녀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큰 손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또한 성년례 참여인원으로는 가족만 참여한다는 경우(44.5%)가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까지 참여

〈표 7〉 가족행사로서 희망하는 성년례에 대한 견해 1

구 분		N	%
성년례를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복응답)	어른으로부터 술 마시는 법도를 배우는 내용	105	13.4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	112	14.3
	주위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다는 내용	114	14.6
	어른으로서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배우는 내용	279	35.7
	올바른 성교육 내용	165	21.1
	기타	7	0.9
성년례를 하는 시기	5월 성년의 날에	126	39.3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40	12.5
	만 19세 생일날에	135	42.1
	상황을 고려해서 정한 날에	20	6.2
성년례를 하는 장소	집	221	68.8
	일반 음식점과 호텔	26	8.1
	패밀리 레스토랑	38	11.8
	기타	36	11.2
큰손님의 초대 여부	모실 것이다	64	19.9
	모시고 싶지만 번거로울 것 같다	175	54.5
	모시지 않겠다	82	25.5
큰손님의 역할 대행자	할아버지 할머니	90	28.0
	아버지 어머니	140	43.6
	가족 중에서 아이에게 도움 될 사람이	91	28.3
성년례 참여인원	가족만 참여 한다	143	44.5
	조부모까지 초대 한다	70	21.8
	가까운 친척들 모두 초대 한다	30	9.3
	가족과 성년을 맞는 성년자의 친구들을 초대 한다	54	16.8
	가능한 친지, 친구 들을 모두 초대한다	24	7.5
계		321	100.0

하거나(21.8%), 가족과 성년을 맞는 성년자의 친구들을 초대하는 경우(16.8%)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성년례에 포함되어야 할 절차로는 교훈(29.4%)과 술의 의례(19.0%), 성년선서(17.2%) 등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년례 때의 복장은 양복정장(43.0%)이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행사로서 성년례 비용으로는 7만원에서 10만원정도 소요 되는 것이 좋다는 견해(43.0%)가 가장 많았다. 성년축하의 선물은 대부분 필요하다(90.7%)고 했고, 축하선물로는 반지나 목걸이(34.3%) 또는 한복이나 양복정장(24.0%), 책(16.5%)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다.

〈표 8〉 가족행사로서 희망하는 성년례에 대한 견해 2

구 분		N	%
성년례에 포함되어야할 절차 (중복응답)	교훈	261	29.4
	술의 의례	160	18.0
	절하기	106	11.9
	성년선서	153	17.2
	성년선언	126	14.2
성년례 때 성년자의 복장	큰 손님 모시기	82	9.2
	한복	52	16.2
	양복정장	138	43.0
	평상복	119	37.1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비용	기타	12	3.7
	5만원미만	36	11.2
	5만원-7만원 미만	47	14.6
	7만원-10만원 미만	138	43.0
	10만원 이상	72	22.4
성년축하 선물필요여부	잘 모르겠다	28	8.7
	필요하다	291	90.7
성년축하선물의 종류	필요하지 않다	30	9.3
	반지나 목걸이	110	34.3
	책	53	16.5
	옷(한복이나 양복정장)	77	24.0
	꽃	20	6.2
	시계	24	7.5
성년례에 대한 교육의 필요여부	기타	37	11.5
	필요하다	304	94.7
성년례 교육장	필요하지 않다	17	5.3
	평생교육원 및 일반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	82	25.5
	학교에서	136	42.4
	종교기관에서	27	8.4
	가정에서	74	23.1
언론매체에서의 성년례교육 필요여부	기타	2	0.6
	필요하다	286	89.1
언론매체에서의 성년례교육 필요여부	필요하지 않다	35	10.9
	계	321	100.0

한편 성년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는 대부분 필요하다(94.7%)고 보고 있으며 성년례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는 학교(42.4%)나 평생교육원 및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25.5%), 가정(23.1%)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매체를 통한 성년례교육의 필요성 여부도 대부분 필요하다(89.1%)는 응답이었다.

어머니들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희망하는 성년례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 장소에 대해서만 가정의 월 소득($P<.01$)과 어머니들의 종교($P<.01$)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9, 10>. 가정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으로 높을수록 사회단체나 학교에서 성년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4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을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종교별로는 기독교의 경우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또는 종교기관에서, 천주교나 불교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나 학교에서 성년례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사전인지에 따라 희망하는 성년례견해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바는 없고, 성년례의 실천 여부($P<.05$)와 언론교육의 필요성($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즉 어머니들이 성년례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실천이 모르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특히 가정의례는 예로부터 보고배우는 경험을 통하여 교육되고 전수되는 바가 많으므로, 중요한 의례의 하나로서 성년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개별성년례를 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 할 것이다. 성년례에 대해 사전인지를 잘 하고 있을수록 언론을 통한 성년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언론매체에 의한 영

〈표 9〉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희망하는 성년례에 대한 견해의 차이

희망하는 성년례		400만원 이하 N(%)	400-600만원 N(%)	600만원 이상 N(%)	계 N(%)	
교육 장소	사회단체	24(20.7)	32(24.2)	26(35.6)	82(25.5)	$x^2=$ 17.717 df=6 P<.01
	학교	45(38.8)	58(43.9)	33(45.2)	136(42.4)	
	종교기관	8(6.9)	11(8.3)	8(11.0)	27(8.4)	
	가정	39(33.6)	31(23.5)	6(8.2)	76(23.7)	
계		116(100.0)	132(100.0)	73(100.0)	321(100.0)	

〈표 10〉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희망하는 성년례에 대한 견해의 차이

희망하는 성년례		기독교 N(%)	천주교 N(%)	불교 N(%)	무교, 기타 N(%)	계 N(%)	
교육 장소	사회단체	20(15.5)	15(30.6)	29(35.8)	18(29.0)	82(25.5)	$x^2=$ 26.188 df=9 P<.01
	학교	57(44.2)	23(46.9)	32(39.5)	24(38.7)	136(42.4)	
	종교기관	19(14.7)	3(6.1)	5(6.2)	0(0.0)	27(8.4)	
	가정	33(25.6)	8(16.3)	15(18.5)	20(32.3)	76(23.7)	
계		129(100.0)	49(100.0)	81(100.0)	62(100.0)	321(100.0)	

〈표 11〉 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사전인지에 따른 성년례 실천 및 언론교육의 필요성차이

성년례 사전 실천 및 언론교육 필요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잘 모르겠다	계	
		N(%)	N(%)	N(%)	N(%)	N(%)	
실천 경험	했다	6(20.7)	34(23.0)	8(9.2)	6(10.5)	54(16.8)	$x^2=9.543$ df=3 P<.05
	안했다	23(79.3)	114(77.0)	79(90.8)	51(89.5)	267(83.2)	
언론 교육	필요하다	28(96.6)	144(97.3)	62(71.3)	52(91.2)	286(89.1)	$x^2=40.649$ df=3 P<.001
	필요하지 않다	1(3.4)	4(2.7)	25(28.7)	5(8.8)	35(10.9)	
계		29(100.0)	148(100.0)	87(100.0)	57(100.0)	321(100.0)	

향력이 매우 크므로 이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결과라 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관례가 사회변화로

인해 사라지고 현대적 의미에서의 관례인 성년례가 행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년자와 부모가 성년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며 가족행사로써 자리매김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도되었다. 특히 가족행사의 주관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성년례에 대한 인식조

사와 실천사례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앞으로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집체성년례가 널리 행해지고 있으나, 형식적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개인성년자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가족중심의 개별성년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둘째, 성년례에 대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변화 교육이 요청된다. 성년례에 대해서 사전에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성년례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해 언론교육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바를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모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대부분이 성년례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듯이 성년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부모대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년례가 근래에 필요에 의해서 생긴 문화로 이해되는 바가 있으므로, 30대 이하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관례의 의미와 더불어 현대식 성년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성년례에 대해서 부모들이 받아야할 교육 내용으로는 큰손님의 역할 수행이나 성년절차, 술의 의례, 성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조사결과 개별 성년례에서는 전통성년례에서 행사를 주관했던 큰손님을 모시는 상황이 어렵고 번거롭다고 여기고 있고, 모실 의지도 희박하다는 경향을 감안해 볼 때, 전통성년례에서 큰손님이 행하던 역할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년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인 책무 깨닫게 하거나 술의 의례,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던 성교육내

용도 함께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성년례의 시기는 20세(만19세) 생일날에 가족이 모여 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성년례는 가정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되, 부모나 조부모 또는 성년자인 자녀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큰손님으로 모시고, 형편에 맞는 선물의 준비하며,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옷차림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년례의 의미를 찾고, 성년자로 하여금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성년례에 대한 교육기관의 노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가정에서도 행할 수 있는 개별 성년례에 대한 교육을 각 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 학생들이 부모세대가 되는 시점에 의미있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현재 부모세대들이 교육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야, 보다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해 지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가정의 교육이나 의례는 단절된 후 다시 자리매김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를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센터를 중심으로 한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에 필요성과 그 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5명 이내의 성년자 가정을 중심으로 성년례실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면, 바람직한 성년례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여섯째, 조사대상자들이 성년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로는 TV등 대중매체의존이 높고, 성년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성년례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계도와 교육이 마련된다면, 이승원

(2006)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상실의 위기 속에서 성년식을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책임을 사회공동책임으로 확산 인식하는 길이 될 것이라 보며, 어떤 계도보다 효과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일곱째, 가정 내에서 부모가 주관하는 현대식 성년례의 다양한 형식과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성년례는 전통성년례의 형식과 그 형식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현대식 성년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별성년례로 시행될 경우에는 현대식성년례의 간소화 차원으로 재정리되는 개별성년례의 형식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체험을 통한 성인의 책무를 내면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실행방식에 대한 타학문분야와의 복합적인 깊이 있는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성년례의 실행은 결국 가정 내에서 부모가 주관하는 성년례의 형식을 도입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라진 전통관례를 다시 가족행사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소중한 의미에 대해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 핵가족에서는 자녀 중심의 가족 활동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자녀의 돌잔치를 예전의 회갑연 못지않게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들 자녀들이 성년이 될 시기에는 성년례도 지금의 돌잔치를 하듯 성행하게 되지 않으리라는 말할 수 없다. 실천사례에서도 친지들 사이에 자녀들에게 성년례를 해주는 것이 유행이 되어 따라했다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가족행사로써 성년례가 적극적인 의례로 실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요즘 젊은 세대가 쉽게 접하는 외국 풍습을 따라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전통 관례로부터 교육되어온 그 의미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가족행사의 주관자인 어머니의 인식을 중심으로 성년례 실천 방안을 찾아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성년례를 경험한 부모와 자녀의 사전 사후 경험 사례분석을 통해서 개별성년례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는 과제가 필요하며, 종교기관에 따른 성년례관련 교육실행과 성년례 모델 개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게 된 자녀를 위한 개별성년례 실행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개발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대식 성년례의 새로운 대안으로 선행연구에서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던 바와 같은 성년자들이 공감하고 성인으로서는 책무를 느낌과 동시에 즐겁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개별성년례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1) 계선자, 이정우, 박미석, 김연화(2005). 성년례 프로그램 모형개발 및 성년례 참여자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6
- 2) 김득중(1997). 실천생활예절. 서울 : 중화서원.
- 3) 김순진(2003).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시덕(2009). 한국 일생의례의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 비교민속학 39, 69-96
- 5) 김은희(2009). 성년례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혜경(2008). 전통 관례와 현대 성년례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문종필(2007). 초등 사회과 관혼상제 관련

내용 및 학생인식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박대순(1987). 조선시대 관례의 사적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사)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2003). 함께 가꾸는 가정문화 의미있는 성년례.
- 10) 신상구(2010).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2, 69-99.
- 11) 안혜숙, 주영애, 김인옥(2002).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 신정.
- 12) 오환일, 김정신, 이행숙, 조희진(2002). 조선족 학생들의 집단 성년례에 대한 인식. 한국여성교양학회지 9, 5-26.
- 13) 이동필(2004). 마산시 고교생들의 예절 및 관혼상제 (사례) 인식에 대한 조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문주(2002).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연구 17.
- 15) 이승원(2006). 한국 성년식의 교육적 의미. 진리논단 13, 257-274.
- 16) 이정우, 김연화, 김경아(2000). 성년례 시연을 통해 본 성년례 모델 개발의 탐색적 연구-참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113-128.
- 17) 이희재(2007). 유교가례의 변용과 창조적 계승. 유교사상연구 31, 25.
- 18) 조희선, 이해자, 이윤정(2002). 성년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대학생의 필요성 인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5, 255-268.
- 19) 조희진, 김정신(1998). 집단성년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141-172.
- 20) 최기호(1994).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통생활예절의 생활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뉴시스(2010.5.17)
 - 투 고 일 : 2010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0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3일